

## “아시아적 가치를 세계적인 출판지식산업으로 성장시키자”

‘2005년 프랑크푸르트 주제국 한국’에 관심 집중

한국 대표, 2005년 유네스코 선정 ‘책의 도시’ 선정 유치 피력

한국출판계 출판상 10개 부문 중 5개 부문 수상 출판강국 위상 과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대 출판기구인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APPA · 회장 \_ 나춘호 · 한국) 제 10회 총회가 지난 8월 23일 인도 델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는 15개 회원국가 중 11개 회원국가 대표가 참석해 각국의 출판현황을 소개하고 출판을 축으로 한 세계적인 지식산업 변화와 회원국간의 협조방안을 논의하는 등 어느 해보다 활기를 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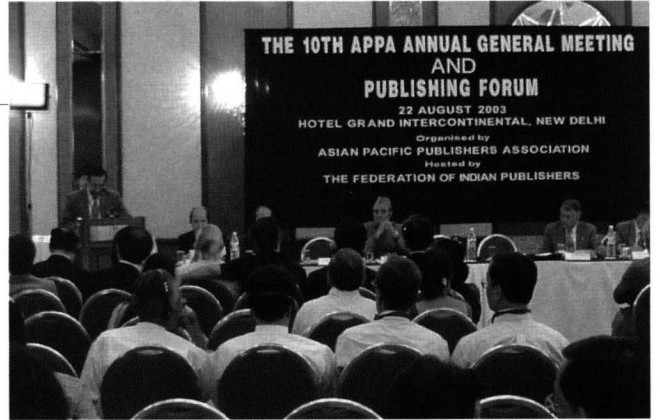


총회에서 나춘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황하강 문명과 갠지스 문명의 발생지가 있는 곳으로 풍부한 인적 자원이 심오한 철학과 학문을 발전시켜 왔다”며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APPA의 비전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넓고 인구도 많은 점을 활용, APPA 회원국가의 긴밀한 협조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출판산업 발전에 매진하자고 촉구했다. 이번 총회에는 국제출판협회(IPA) 페레 비센스 회장(스페인)이 참석, 아시아태평양 국가 출판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이들 국가의 출판현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눈길을 끌었다.



총회에 뒤이어 열린 11차 APPA포럼에서는 한국을 비롯 인도·중국 대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책 읽는 사회 만들기’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인도 무르리 조쉬 인력자원부 장관의 개막연설에 이은 주제발표에는 한국의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 박광무 과장, 인도의 카란 싱 국회의원, 중국의 쩐 웨이지양 중국출판공작자협회 부주석이 나라별 대표로 나섰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의 박광무 대표는 ‘한국은 지금 책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를 수립,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출판및인쇄진흥법’과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을 소개한 후 2005년 프랑크푸르트 주제국으로 한국이 선정된 점과 관련, 정부의 의욕적인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표는 우선 서울국제도서전을 내실화하여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보다 활발하게 참

- 2003년 APPA 총회. 아시아 태평양 회원국 15개 국가 중 2005년 프랑크푸르트 주제국으로 선정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았다.



## THE 10TH APPA ANNUAL GENERAL MEETING AND PUBLISHING FORUM

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APPA 회원국에 대하여 특별한 유익을 주도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주제국가로서 아시아의 가치를 유럽과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은 한국 출판계가 아시아의 출판발전과 세계 출판시장에서 보다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라고 전제,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출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아시아의 출판발전을 새로운 차원에서 구현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4년 주기의 세계출판협회(IPA) 총회가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05년 서울이 유네스코가 정하는 '책의 도시'로 선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 정부가 '책의 도시' 선정 유치에도 나섰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

이날 참석자들과 각국 대표들은 한국참가단이 준비해 간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제국가 한국' 홍보물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한국정부의 지원방식과 주제행사와 관련해 다양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

이날 총회와 포럼에 뒤이어 열린 각국 대표 초청 만찬에서 APPA 나춘호 회장은 "지난 10년이 서로를 이해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APPA 총회가 회장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매년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서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랫동안 행사를 준비해 온 인도출판연맹을 격려했다.

●

한편 APPA 총회 전날 있던 '2003 APPA 출판상' 심사회에서는 일반도서 학술도서 아동도서 등 10개의 상 중 5개 상을 한국출판사가 휩쓸어 한국의 출판위상을 과시했다.

인도 델리\_문승현(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APPA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는 1992년 11월에 일본 동경에서 창립되어 1994년 일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1999년까지 일본이 회장국으로 있으면서 APPA의 사무국 운영을 맡아왔으나 2000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7차 총회에서 당시 대한출판문화협회 나춘호 회장이 APPA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관례대로 새 회장국인 한국으로 APPA 사무국을 이전, 한국이 회장국단체로서 사무국을 운영해 오고 있다. 회원은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15개 국가이며 회원국간 출판관련 정보 교류 및 문화 교류를 추진한다는 목적 아래 연례총회 및 포럼 개최, APPA 출판상 시상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